

1978년 제2회 향토문화제(聖留祭)



<그림 18> 제2회 향토문화제[성류제]

울진문화원은 1977년 제1회 성류제(聖留祭)를 시작으로 해 울진지역 향토문화제를 개최했다. 1978년 제2회 성류제를 보면, 표어는 “나라사랑 겨레사랑 향토문화 밭들자 조상의 얼 피우자 문화의 얼”이었다. 주로 농악 놀이, 고등학생 음악 발표회 등을 진행했다.

도시새마을사업



<그림 19> 도시새마을운동 추진대회



<그림 20> 76하반기 도시 새마을운동 촉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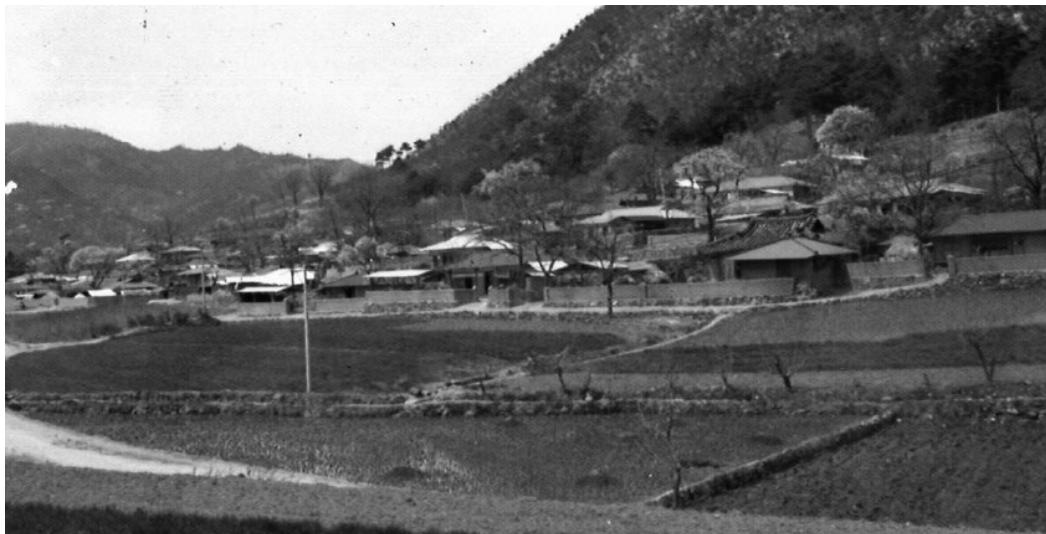


<그림 21> 울진읍 읍내2리 새마을회관 준공식



<그림 22> 매화면 금매2리 금매교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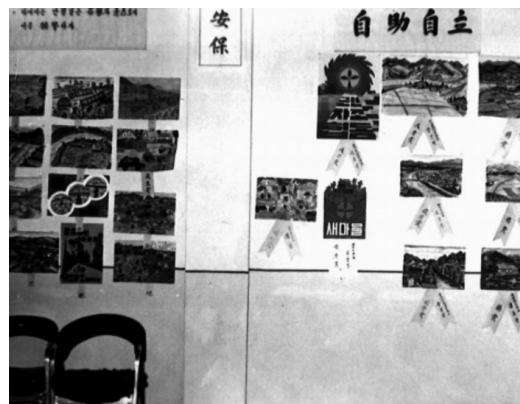
새마을운동은 「농어촌근대화촉진법」(1969년 11월)에 의거해 197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었고, 목표는 주로 새마을운동의 생활화, 도시새마을운동의 도약 등이었다. 당시 새마을운동의 주요사업은 새마을 지도자 양성 및 교육, 마을 미화 및 도로 건설 사업, 서양식 현대화 주택 건설, 가정집 슬레이트 지붕 고치기 등이었다.



<그림 23> 근남면 구산4리



<그림 24> 새마을 그림 그리기 대회



<그림 25> 새마을 표어 대회 출품 작품

1976년 울진지역의 새마을사업의 현황을 보면, 도시새마을운동추진대회를 개최했다. 주로 새마을회관, 새마을협동창고, 교량, 마을 진입로, 농수로 등 건설, 송수관 매설 공사, 제방 공사, 지붕개량 등을 실시했다. 또한, 새마을 그림그리기 대회, 새마을 붓글쓰기 대회, 새마을 표어 대회 등을 개최해 새마을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했다. 1976년 도시새마을운동이 전개된 곳으로는 울진읍 읍내 1·2리에는 새마을 회관, 기성면에는 새마을협동창고, 매화면 금매2리에는 금매교 등을 준공했고, 매화천에는 제방공사를 했다. 근남면 구산4리에서는 슬레이브 지붕 공사, 마을 안길 조성, 담장쌓기 등을 통해 마을 전체를 정돈하였다.

치산녹화 사업



<그림 26> 근남면 금매2리 리기다 소나무 마을 양묘장



<그림 27> 금강송면 하원리 오동나무 양묘장

치산녹화계획은 1973년부터 새로운 산림정책으로 전국 단위로 시행되었다. 제1차 치산녹화계획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진행되었으며, 관,민이 모두 벌채 및 무담 입산 통제,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 산림 보호 및 관리, 농촌 연료공급을 위한 대단위 연료림 조성, 사방사업, 조림지 조성 등이 시행되었다. 제2차 치산녹화계획은 1979년부터 1988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진행되었으며, 목표는 장기적 경제림을 조성해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림 28> 금강송면 하원리 오동나무 단지



<그림 30> 산불방지를 위한 방화선



<그림 29> 77해안사방용 토지방

울진지역의 치산녹화 사업은 식립 사업, 양묘장 설치, 산불 방지를 위한 방화선 작업, 사방공사 등이었다. 양묘장을 보면, 근남면 금매2리에는 리기다소나무, 서면 하원리에는 오동나무, 북면 나곡4리에는 밤나무 등 주로 마을 단위로 묘목을 달리해 양묘장을 설치해 관민이 함께 운영했다. 바닷가에 있는 울진에는 해안사방지구가 설치되었다. 봉평2리 산림계는 1976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 10일간 죽변면 봉평리 해안사방지구를 설치하고, 1977년도에 사용할 사방용 토비장(土肥場)을 만들었다.

식량 증산 사업



<그림 31> 뜻자리 공동 병충해 방제



<그림 32> 마을 공동 집단 뜻자리 설치



<그림 33> 추곡수매 모습[11만 입(収) 달성]



<그림 34> 마을 공동 모심기

식량증산사업은 1970년대 소득증대사업의 하나로 시행되었다. 주 사업은 퇴비증산·지력증진으로 단위 생산성을 증대하고 시한영농과 협동영농으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했다. 식량증산사업은 평야마을, 중산간마을, 산간마을, 어촌마을, 도시근교마을로 분류해 작목순위를 정해 사업을 전개했다. 산간마을은 임업, 축산, 특장, 과수 순으로, 어촌마을은 양식, 축산, 특작, 채소 순이었다.



<그림 35> 도 보리증산왕으로 뽑힌 채종시범단지



<그림 36> 보리집단재배단지 결과평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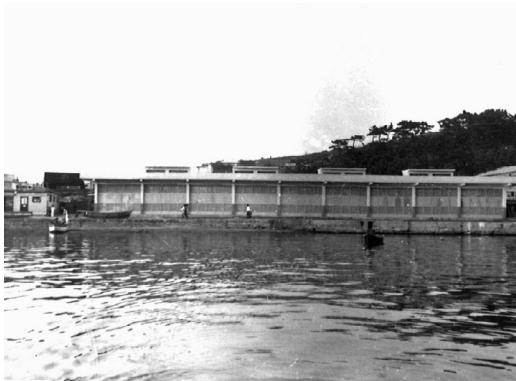
<그림 37> 77년 보리 증산 대회



<그림 38> 쥐 잡기 운동

울진지역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못자리 설치, 공동 못자리, 병충해 방제 사업, 추수 기구의 현대화, 퇴비장 설치, 평가회 등을 통해 식량 증대 사업을 진행했다. 식량 증산 품종에는 벼, 보리였으며, 1년 2모작을 실시했다. 곡식을 축내는 쥐를 잡기 위한 “일시에 쥐약 놓아 남은 쥐 모두 잡자”라는 표어로 쥐 잡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수산 진흥 사업



<그림 39> 오징어 건조장



<그림 40> 해조류 건조장



<그림 41> 태풍 피해 어선 복구 합동 진수식 광경

1970년대 소득증대사업은 소득구심사업과 새마을생산사업으로 나눠 전개되었다. 소득구심사업에서는 마을 조림, 양묘, 농가 공산품 사업 등, 새마을 생산사업에서는 주로 농업·수산 분야에서 생산구조 개선 사업, 생산 협동 사업이 시행되었다.

울진지역에서는 주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건조장, 태풍 피해 복구 사업이 이루어졌다. 울진의 대표적 어종인 오징어, 해조류 관련 건조장이 설치되었으며, 태풍 피해로 파선된 배를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오징어 건조장은 1천만 원을 투자해 준공한 건조장으로, 1976년 당시로는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했다.

보건 환경 사업



<그림 42> 죽변어민상담소 내 검역소



<그림 43> 치과 순회 진료

<그림 44> 방역반 발대식

복지환경사업은 새마을 운동 초기 기초생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복지환경사업은 의료보건향상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소도읍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의료보건향상사업은 의료활동, 가족계획, 영양관리, 급수위생관리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이동진료반을 편성해 일반진료반, 치과반, 결핵반으로 편성해 마을단위로 순회했다. 가족계획사업에서는 두 자녀 갖기 캠페인을 펼치고, 영양개선 시범마을을 지정, 운영했다. 자연부락 20호 이상인 마을에는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했다.



<그림 45> 가족계획어머니회원의 계몽 교육



<그림 46>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금지 행동 캠페인(1975. 8.)

울진지역에서는 전염병 초기 대응을 위한 방역반이 금성상사 주유소 앞에서 발대식을 했다. 방역반은 울진지역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염병 예방 주사 놓기, 영세민에 대한 무료 순회 진찰, 치과 순회 진료, 피임기구 공급 및 가족계획 캠페인, 전염병 오염 지역에는 연막(煙幕) 소독 등을 실시했다. 한편, 울진군어머니회에서는 “부정 불량 식품은 사지말고 팔지말자”, “부패식품 파는 사람 양심도 부패했다”, “사지말자 불량식품 고발하자 부정식품”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울진지역 중심 시가지(화신서점 및 울진운동구사 앞 거리)에서 가두 시위를 했다.

부녀회 활동



<그림 47> 76새마을어머니회 성공사례 발표대회



<그림 48> 매화면 오산리에 기부된 돼지새끼



<그림 49> 76새마을부녀지도자전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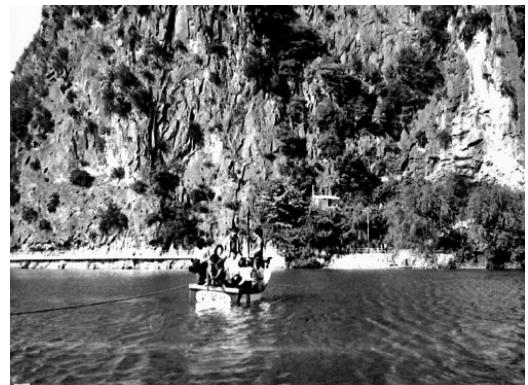
부녀회는 주로 저축 장려 활동, 새마을 구판장 및 공동 취사장 운영, 부녀 교실 등을 운영했다. 부녀교실에서는 공동 학습, 어린이 공부방 및 농번기 택아소 운영, 공동작업·공동사업을 통한 기금 조성, 소비 절약, 재활용사업 등을 펼쳤다.

울진군의 부녀회 조직을 보면, 울진군청 내 울진군새살림회가 설치되었다. 울진군새살림회는 울진지역의 읍·면·동·자연부락에 조직된 부녀회와 이 부녀회 조직을 관리하였다. 울진군새살림회는 이들 조직과 자매결연을 맺어 울진 전 지역에서 부녀회를 운영·관리했다. 울진 지역에서는 새마을부녀지도자전진대회, 새마을 어머니 성공사례 발표회, 공무원 가족 특별 교육 대회 등을 개최해 부녀회 활동을 촉진하였다.

관광 산업 개발



<그림 50> 덕구계곡 등산로 개발



<그림 51> 성류굴 진입 도로 공사



<그림 52> 동해의 낙원관광을진안내도

오늘날 울진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에는 성류굴, 덕구계곡, 덕구온천, 불영계곡, 불영사 등이 있다. 울진지역에서는 1970년대 성류굴, 덕구계곡, 덕구온천, 불영계곡을 비롯해 평해향교, 울진향교, 월송정, 해수욕장 등에 안전시설물·교량·등산로·휴게소·안내소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에서나 제공하는 ‘관광 코스’가 1970년대 벌써 개발돼 시민들에게 울진지역을 관광·유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4H 활동



<그림 53> 제1회 울진면 4H 경진대회



<그림 54> 제21회 4H 구락부경진대회 및 제13회 농가생개 구락부경진대회